

호남정치 고립 '大選 트라우마' 재현되나

새누리, '기초공천' 유지 결정 지방선거 준비 박차

민주·새정치연합, 합의 도출 못하고 '감정' 싸움만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호남만 정치적으로 고립됐던 악몽이 재현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공천제 유지를 일찌감치 결정하고 지방선거 준비에 나서고 있는 반면,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등 야권은 좀처럼 단일대오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를 놓고, 감정의 골이 깊어가고 있다. 기초선거 '무(無)공천'이라는 승부수를 던진 새정치연합은 26일 민주당의 '공천유지'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며 '낯은 정치세력'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 중앙운영위원회

인 안철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세력이 국민과의 약속(기초선거 무공천)을 어물쩍 넘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여준 공동의장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이날 이달 말까지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며 당 차원의 결정을 미룬데 대해서도 "그 사이에 대통령과 여당의 태도가 바뀔 거라고 기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겠는가"라며 "집권당이 이 자리에서 어쩔 수 없으면서 공천을 유지하려는 것 아니냐"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사실상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적대적 공생관계'로 규정, 민주당을 '낯은 기성정치권'의 프레임에 몰아넣은 것이다.

이제 민주당은 즉각적 반응을 자제하면 서도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모 의원은 "새정치연합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오버하는 것 같다"며 "차별화도 좋지 판을 깨지는 말아야 할 것"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정치권에서는 특검과 정당공천 폐지 문제로 손을 잡았던 양측의 균열이 커지면서 지방선거에서의 야권연대가 쉽지 않을 것 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 안풍(안철수 바람)이 예전 같지 않은데 민주당도 좀처럼 정치적 존재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기 때문이다.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야권연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야권이 사실상 전패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연대를

이루지 못하고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모두 후보를 낸다면 호남을 제외하고 승리를 장담할 지역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지난 대선처럼 호남만 고립되는 결과가 도출될 경우 지역 민심의 정치적 소외감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 군사정권에서 경제적으로 소외에 시달린데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정치적으로도 점차 고립되면서 지역 민심의 '트라우마(정신적 외상)'가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야권이 당장의 이익보다는 보다 먼 미래를 보고 한 걸음씩 양보하며 지방선거 승리를 견인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며 "단순한 선거 연대보다는 국민적 가치와 현안에 함께하는 연대를 통해 민심의 공감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원내대표 '조기경선' 내홍

초·재선의원, "3월로 앞당겨 선출" 공론화

지도부선 "당력 집중할 때" 부정적인 입장

민주당 강경파 사이에서 오는 5월15일까지 임기인 전병헌 원내대표의 후임을 3월로 앞당겨 선출하자는 '조기경선론'을 제기하면서 또다시 내분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초·재선 의원 22명이 참여하고 있는 '더 좋은 미래'는 조기경선론을 조만간 공론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 모임에는 시민사회 및 486(40대·80년대 후반·60년대생) 소장파 인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대어 강경노선 쪽에서 왔다. 신경민 위원실 최고위원 등 일부 지도부 인사도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원내대표 3월 조기선출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 초안에서 국가 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관철 실패 등을 지적하며 "이런 무기력하고 무능한 모습으로 지방선거에서 국민 지지와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주장했

다. 이어 "수권의 비전과 능력을 갖춘 신뢰받는 정당, '감한 야당'이 되기 위한 면모일신이 시급한 만큼 원내대표의 교체를 요구한다"며 "3월 중으로 원내대표 조기선출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 좋은 미래"는 당초 이날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27일 다시 회의를 열어 최종 의견 수렴작업을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원내 지도부를 포함한 김한길 대표 측 인사들은 "당력을 집중해야 할 때 적전분열로 보여선 안 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재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는 3선의 김동철·유운근·노영민·박영선·조정식 의원 등이 출마를 검토 중이다.

/박지경기자jpkpark@kwangju.co.kr



새정치 경기도당 창당 발기인 대회

2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가천대학교 컨벤션홀에서 새정치연합 경기도당 창당 발기인 대회가 열려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이 대회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초공천 폐지 놓고

'長考'에 빠진 민주당

安측 '무공천' 전격 선언에 결론 못내리고 고심 또 고심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애초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들은 뒤 26일 정당공천 문제를 결론 낼 생각이었으나 안 의원의 측이 '무(無)공천' 승부수를 던지면서 결론을 유보한 채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활동시한인 이날 말까지는 박 대통령에게 공약 이행을 최대한 촉구한 뒤 최종 선택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도 기초선거에서 공천할 수밖에 없다고 오늘 말씀하지 않겠다"며 박 대통령을 향해 대선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결심을 "늦어도 2월이 다 가기 전에 밝혀라"고 압박했다.

김 대표는 전날 박 대통령의 담화에서 공천 폐지 문제가 언급되지 않는 데 대해서는 "참 비통한 심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의 침묵에 대해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라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굴며 국민과 야당을 철

저히 무시하는 대통령의 태도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 공천 유지 쪽으로 사실상 가닥을 잡았으며 김 대표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 유지 불가피론"이라는 최종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김 대표가 이날 입장 유보 결정을 내림에 따라 3월초에 최종 결론을 발표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대선후보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했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도 마지막 순간까지 공약 실천의 관철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끝내 불발될 경우 민주당이 무(無)공천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도 새누리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제도적으로) 관철해볼 길은 없는 것"이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노력하는 다한 후에 만약 안 된다면 그때는 다시 지도부가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단을 내려야겠다"고 답했다.

/박지경기자jpkpark@kwangju.co.kr

김한길·안철수, 오늘 '기초공천' 담판

합의 이뤄질지 촉각... 지방선거 연대 논의 관측도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창준위 중앙운영위원장이 27일 오후 4시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만난다.

이날 회동에서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가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이어서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것인지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6일 민주당 박광은 대변인은 국회 브리

핑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해 김 대표와 안 위원장이 내일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번 회동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 대표는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결정할 상황이라는 정치적 현실을 고

려할 때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이날 회동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지렛대로 지방선거에서의 연대 논의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회동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질적인 연대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모으고 있다"며 "이날 회동에서 큰 그림이 나온다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에 상당한 유리한 국면이 생성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동은 안철수 위원장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 국회 정치개혁특위 주호영 위원장에게 회동을 제안한 것을 김 대표가 수락하면서 성사됐다.

안 위원장은 이날 회동에 앞서 먼저 주호영 정개혁특위 위원장을 만날 예정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의 회동은 성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식 창당회 당의 모습을 갖춘 뒤 당 대 당으로 회동 제안을 하는 것이 순서"라며 사실상 제안을 거절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국가/공/인 한문지도사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생 모집

1 연수일정(2014년 제12기)

- 개강일시: 2014. 3. 3(월) 초급아간 18:30 중급아간 18:30
- 개강장소: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2014. 2. 3(월) ~ 2014. 2. 28(금)
- 수업기간: 2014. 3. 3(월) ~ 2014. 6. 20(금)(총 90시간)
- 수강료: ₩360,000
- 모집인원: 초급 아간: 30명(민간자격) 중급 아간: 30명(국가공인자격-민간자격도 동시취득)

※ 기초가 부족하면 초급반에 지원하되, 우로시 중급반에 자동 진급하고 초급반 수업 정도의 기초실력이 인정되는 자는 중급반에 지원 할 수 있음

수업시간: 매주 월요일, 금요일
초급·중급 모두(18:30 - 21:30(3시간 수업))

수료 후 특전

- 초급·중급 연수과정 수료시 / 총장 발급 수료증 수여
- 초급 수료시 / 한국공인대학 평생교육원 협의회 시행 한문지도사 시험 응시
- 중급 수료시 / 국가공인 2급이상 한문지도사 시험응시 / 국가 공인 기관 시험
- 연수과정 중 / 국가공인 한자 급수 취득 기회 부여
- 각 한문학원 강사 및 한문학원 개설 가능
- 노인 복지 및 각급 사회복지기관 강사 취업 가능
- 초·중등 각급학교 방과후학교 한문강사 취업 가능

2 원서교부 및 접수처(토일 공휴일 유무)

전 화 (062)530-3873-3876
담당교수 H.P 010-2611-1171, 010-8712-1378
광주은행 : 074-107-004114(예금주:전남대 평생교육원)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sle.jne.go.kr

신협을 알아야 재테크의 완성!

1인당 예금비과세 3,000만원 (생계형 / 세금우대 별도)

대출한도 25억원

한도는 높게 ↑ 최대 ~80%
금리는 낮게 ↓ 최저 4.3%~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공동본점 | 금호지점 | 품암지점

부실채권(미회수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 각종 미회수대금

- 선수금없음, 후불제(착수금) (법 비용은 채권자 부담)
- 수수료(회수금액의 30%이내)
-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 직접 추심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

세일신용정보(주)
062)385-0006, 010-4608-6061 (담당:김정수)

漢字·漢文指導師資格

※ 教育部科學技術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18기)	광주교육대학교(9기)
개강일시	·금요일 오전반 2014. 3. 7(일) 08:10 (특급반) ·토요일 오전반 2014. 3. 8(일) 08:10 (중급반)	·월, 목 야간반 2014. 3. 3(일) 19:00 (초급반) ·목요일 오전반 2014. 3. 6(목) 08:10 (중급반) ·토요일 오후반 2014. 3. 8(토) 14:10 (특급반)
모집기간	2014. 1. 23(목)~3. 8(토)	2014. 1. 23(목)~3. 8(토)
수업기간	2014. 3. 7(금)~2014. 8. 16(토) (6개월 2주 96시간)	2014. 3. 3(일)~2014. 8. 16(토) (6개월 2주 96시간)
수업시간	·매주 금·토요일 오전 08:10~13:00	·매주 목요일 오전 08:10~13:00 토요일 오후 14:10~18:00 월, 목요일 야간반 19:00~21:00
수강료	₩360,000 (예금주·광주예대) ·광주은행: 146-107-307803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우체국: 503557-01-005018
수료후 특전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초·중·고)교과 및 후 교육원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대학기회 부여)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초·중·고)교과 및 후 교육원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대학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 062)950-3582~4 ·지도교수: 010-3614-4160	·문 의: 062)520-4243 ·지도교수: 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ac.kr/